

2 종합

양캠 관할 지자체 수해 방지 대책은?

최고훈 기자 cgh99915@khu.ac.kr

장마철을 맞아 양캠퍼스 지역 지자체가 침수 방지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해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양 캠퍼스 주변은 재학생 자취방이 집중된 지역이며, 특히 반지하 세대는 폭우로 인한 침수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서울 디지털 재단이 내놓은 '침수 취약 지역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

르면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서 침수에 가장 취약했다. 동대문구는 평균 해발 고도가 22.9m로 서울 평균(64.8m)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지하 1층이 존재하는 건물의 수도 각 구 중 가장 많았다. 추가로 맨홀 수가 가장 많아 지하 수위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동대문구청은 “장마 관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6일 동

대문구는 동대문소방서와 합동으로 ‘극한 강우 훈련’을 실시했다. 호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전 상황처럼 훈련이 진행됐다.

동대문구청 치수과는 “침수와 관련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지하 거주 세대 중 재해 약자(장애인, 노인,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하여 돌봄동행 파트너를 지정하여 공무원과 1:1로 연결되어 있다”며 “호우주의보 발령 시 기상 안내 문자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드린다”고 전했다. 추가로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 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빗물받이 하수구 등을 매일 청소한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실제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호우에 의한 피해가 맞다고 판단되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캠 근방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침수 관련 사고가 적은 지역이다. 폭우에는 영통역 근처 맨홀의 수위가 상승하여 물이 범람하나 하수도 시설이 잘 정비돼 있어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영통구와 기흥구는 안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통구 안전건설과 박해정 주무관은 “반지하 상가 침수 방지 장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침수 감지 알람 장치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터담과 모래주머니, 위터 펌프 등 수방장비를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구비했으며

장비를 점검하고 이용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 구청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지역방재단, 경찰관 4명이 한 조를 이뤄 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통구는 침수 피해를 보았을 때를 대비하여 ‘풍수해 보험 시스템’을 구비해 놓았다. 피해 발생 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하면 된다.

서울캠 근처 반지하에 거주하는 오선빈(경영학 2024)씨는 “반지하를 거러할 때 집에 침수 이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확인한 후 계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동대문구 침수 방지 장비 사업이 홍보가 될 때 관련 사업을 알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추후에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겠다”고 말했다.

행복기숙사 민원 ‘와이파이’가 최다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서울】 지난 학기 행복기숙사 시설 고장 신고 중 가장 많은 건은 ‘와이파이 이용 불편’이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내 ‘시설고장신고’란에 접수된 437건의 게시글을 종합한 결과, 와이파이 및 인터넷 관련 불편 사항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행복기숙사에는 모든 호실과 휴게실, 세탁실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관련 고장 신고는 3월 26건, 4월 29건, 5월 19건, 6월 17건으로 꾸준히 접수됐다. 행복기숙사에 거주 중인 오현석(미디어학 2024) 씨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 적도 있었고 세탁실 같은

공용시설 와이파이기가 살짝 느린 것 같다”고 말했다.

행복기숙사 행정실은 주요 고장 원인으로 “랜선이 닿거나 과열되는 경우”라며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해 전파가 꼬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그때 랜선을 교체해 주거나 허브를 리셋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파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화장실 배수 문제(88건)였다. 이 중 70건은 세면대 관련 신고였다. 이외에는 의자 고장(58건), 변기 관련(37건), 에어컨 관련(32건) 등이 있었다. 행복기숙사 행정실은 “화장실 배수는 청소가 안 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직접 청소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행복기숙사 주요 민원

민원	건수
와이파이 연결 불편	91
화장실 배수 문제	88
의자 고장	58
변기 관련	37
에어컨 관련	32
책상 관련	14
수업 불편	12
냉장고 고장	10



쑥고개지하보도에 '안심지하보도 조성사업'이 이뤄졌다.

(사진= 조병연 기자)

‘안심 지하보도 조성사업’ 진행돼

정유현 기자 uhy2on03@khu.ac.kr

【국제】 국제캠 정문과 정문 앞 상권을 잇는 쑥고개지하보도(지하보도)에 ‘안심지하보도 조성사업’이 이뤄졌다.

쑥고개 지하보도는 1998년에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와 함께 어두운 조명, 방치된 낙서 등이 보행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CCTV, 보행자의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거울,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했다. 양방향 비상벨을 누를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즉시 연결된다. 추가로 LED 조명을 교체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 범죄예방계장 문성구 경감은 “시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지하보도를 이용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주신영(산업디자인학 2024) 씨는 “으스스한 지하차도라서 저녁에 가끔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조성사업 이후 좀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많이 지나가는데 위험할 수 있어서 추가로 센서 설치나 따로 이동로를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